

불황 실감한 5월 가족공연 내년 5월을 기대하며...

김승현 | 문화일보 부장, AM 7 편집장

올해 오월에는 예년에 비해 가족극이 상당히 초라했다. 그러나 전석 매진으로 올 가족극 시즌의 최고 화제작으로 평가되는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은 어린이극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수학뮤지컬, 영어연극,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가족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

Family Festival



올 가족극 최고의 화제작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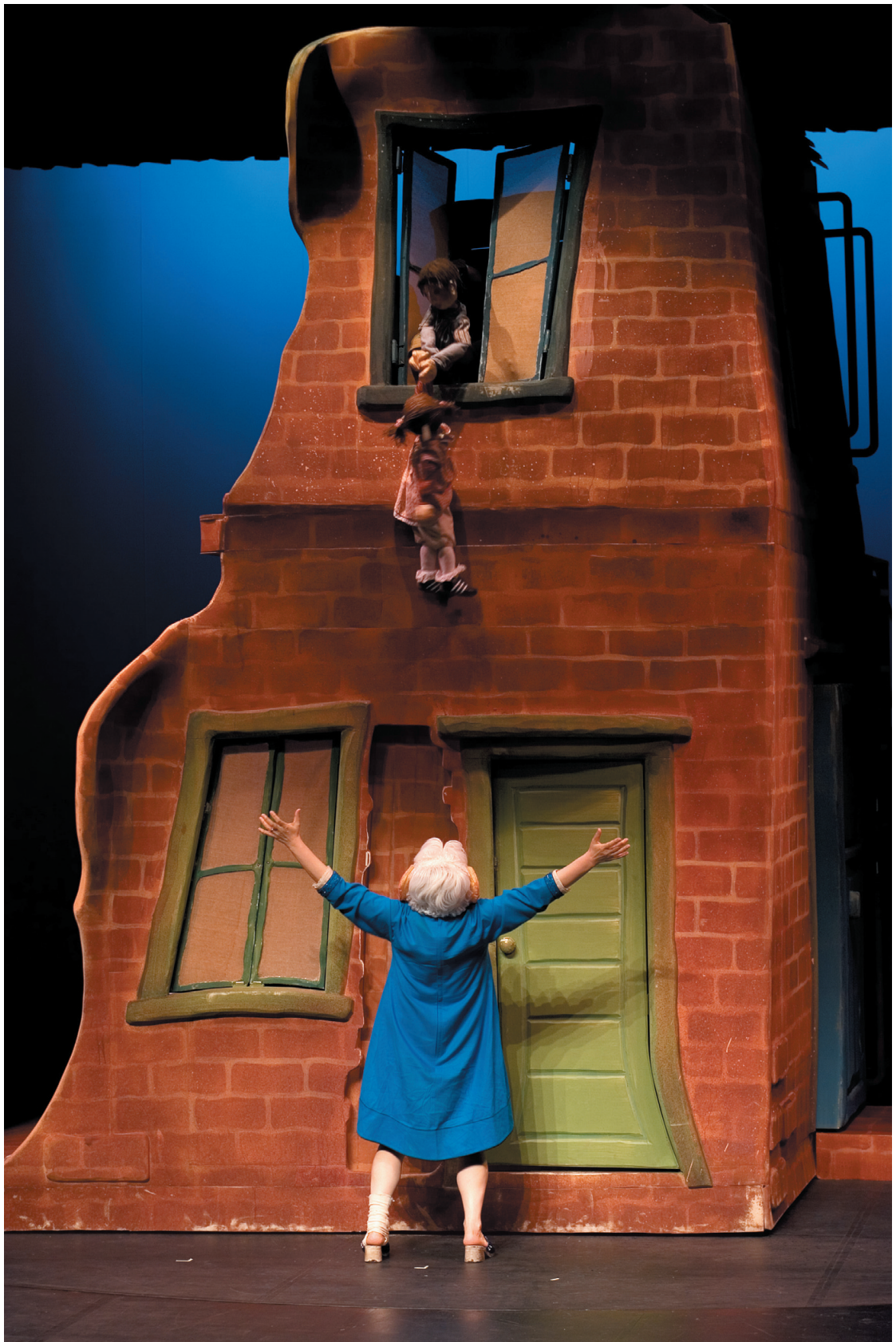
올 해 오월은 불황의 그늘이 짙었던 것 같다. 공연 시장 불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가족극만은 예외였다. 한국적인 독특한 교육열에 기초한 가족극은 공연시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꼽힐 정도였다. 그러나 그 가족극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초라하다는 느낌이다. 방송국과 극장, 극단이 함께 만든 디즈니식 장르적 계절용 가족 뮤지컬도 보이지 않았고, 새로운 가족공연 장르로 떠오르던 가족무용 공연도 자취를 감췄다.

경제는 회복세라고 높으신 분들이 지표를 들어 말 씀하시지만 아직 일반 서민들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백화점 경기는 살아났지만 재래시장의 경기는 여전히 쪼그얼어붙어 있는 등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시장 양극화만 심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뜻한 어린이 선물,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의 한 명인 박정자 씨와 예술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내는 것으로 유명한 연출가 한태숙 씨가 처음으로 시도한 아동극 어린이문화예술학교(대표 김숙희)의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4. 15~5. 15 서울 중구 정동극장)은 단연 백미였다.

박씨는 “일곱 살 무렵부터 연극을 보기 시작했는데





위 · 공연창작집단 뒤탈의
〈하루이 이야기〉
아래 · 국내 최초의 어린이
수학뮤지컬 〈제로공주 실종사건〉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은 이들 젊은 부모들의 아킬레스건, 즉 아이들과 자신들의 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무거운 울림을 준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보인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이었다”며 “이 같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야 실현하게 됐다”고 이 작품 참여 배경에 대해 말했다.

한씨는 〈레이디 맥베스〉 〈서안화차〉 〈썩추, 리차드 3세〉 등 일반 성인극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온 연극미학자로 꼽힌다. 그는 “아동극을 만든다니까 주위에서 그로테스크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조크를 한 뒤 “아동극이라도 연극적 재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작품으로 관객들로부터 ‘아, 참 따뜻하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애썼다”고 연출배경을 설명했다.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은 원작 동화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연극에선 ‘할머니의 귀가 늘어났다’는 소재만을 빌려와 새롭게 만들었다. 홀로 사는 할머니와 새로 이사온 위층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주요 줄거리다.

할머니는 위층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화를 내며 아이들을 구박하고 야단친다. 반복되는 할머니의 꾸중엔 아이들도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마침내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된다. 너무 조용해지자 오히려 궁금증이 생긴 할머니는 귀가 커지는 이상한 병에 걸린다. 결국 할머니는 ‘조용히’ 장난치다가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해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전석 매진으로 올 가족극 시즌의 최고 화제작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과연 어린이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전범을 보여준다. 그동안 어린이극은 성인극이 쉬는 낮 시간을 이용, 극장을 활용하는 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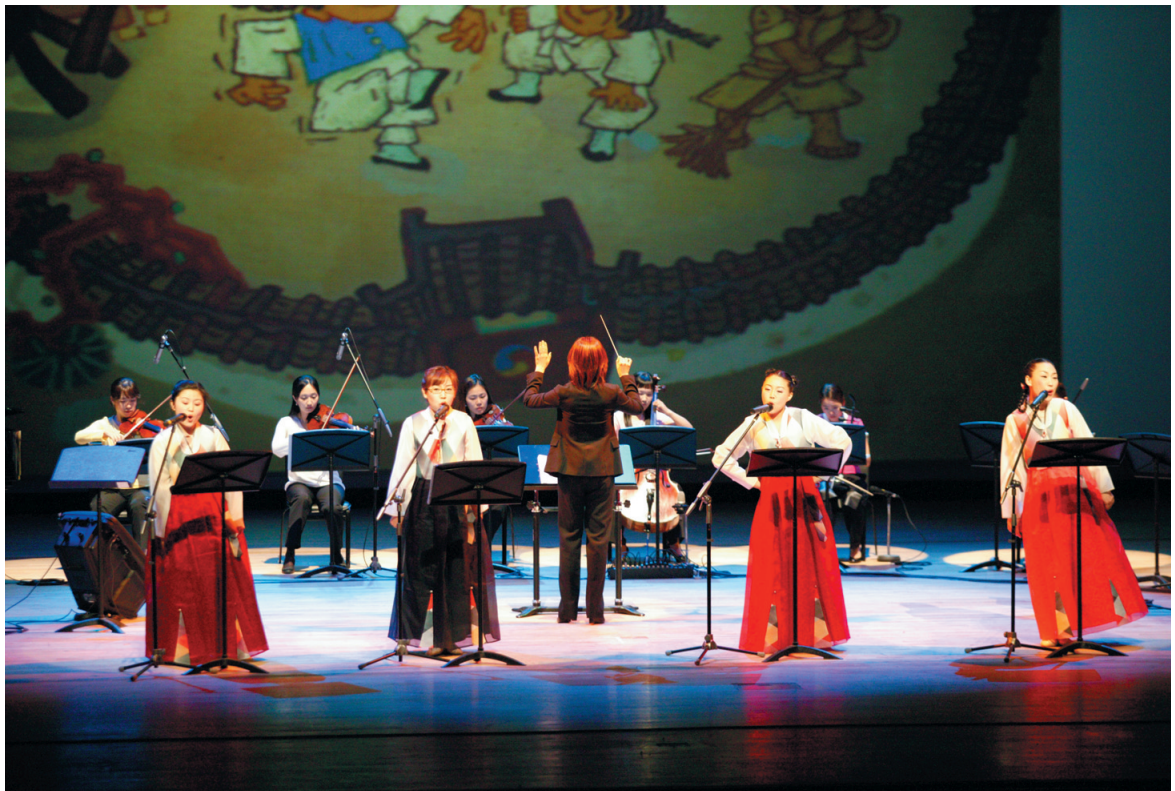
공연이며, 단원의 훈련을 위한 연습공연 성격이 짙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연극이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가족극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업적인 땀질 공연이 많다.

우선 주제다. 어린이극 하면 무조건 아름답고 착한 동화 같은 이야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어른 이상 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눈높이를 맞추다고 낮추기만 했다가 아이들한테 핀잔 받기 일쑤다. 그렇다고 너무 높여서도 곤란하다.

이 작품은 아파트의 소음문제와 노인문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의 시점이 아닌 복합적인 시점으로 접근한 게 재미있다. 새집으로 이사하고 마음껏 떠들고 싶은 어린이의 욕구와 시끄러운 것은 질색인 할머니의 대립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의 기본 에티켓 교육문제와 노인들의 소외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의 대립이다. 물론 현대 물질문명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사람들의 정서도 그 안에 들어 있다. 즉 주 관객인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심까지 충족시키는 등 관객 모두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음은 다양한 연극적 방법이다. 한씨는 이 가볍지 않은 복합적 주제를 가면극과 놀이, 인형극이라는 다양한 연극적 방법을 이용해 경쾌하게 풀어냈다. 아이들을 꾸짖은 다음에 귀가 커지는 할머니를 통해 기성 사회의 왜곡을 질타하면서도 그 소외를 안타깝게 바라본다. 인형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갈등과 오해를





위 ·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창작가족 인형극 <애기똥풀>
아래 · <리틀 드래곤>의 후속작으로 나온 어린이 영어연극 <돌아온 리틀 드래곤>

왼쪽 페이지

위 · 악어기획이 마련한 뮤지컬 <로빈 훗과 친구들>

아래 · 이야기로 노래를 부르는 체험 콘서트 형식 <시리똥똥 거미똥똥>

아기용이 갖가지 모험을 겪으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돌아온 리틀 드래곤>은 정확하고 교육적인 영어 대사, 수준 높은 무대, 심지어 로비와 화장실까지도 아이들을 동화 속 환상세계로 안내하는 극장측의 세심한 배려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다.

씻어내는 과정이 결코 잘 만든 성인극 못지 않은 재미와 긴장감을 준다. 여기에는 박정자 씨를 비롯, 김정석, 이혁열, 하지혜 씨 등 잘 훈련된 배우들의 역할이 화룡점정이었다. 또 상징성이 가득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기능적으로 깔끔한 무대를 만들어낸 이태섭 씨의 공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이들 작품은 아이들만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작품을 골라주는 것이 젊은 부모들인 만큼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주제와 깔끔한 구성, 표현이 필수적이다.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은 이들 젊은 부모들의 아킬레스건, 즉 아이들과 자신들의 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무거운 울림을 준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보인다. 박정자 씨와 한태숙 씨는 처음 아동극에 도전하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참 따뜻한 어린이 선물'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다.

흥겹고 신명나는 가족극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가족극으로 평가되는 공연 창작집단 뛰다의 <하루이야기>(4. 26~5. 8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는 5월 가정의 달 고정 레퍼토리로 완전 자리 잡았다.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큰 인기를 모았다. 전통성 짙은 가면극과 라이브 연주, 상상력이 활용된 살아 있는 무대는 언제 봐도 매력적이다.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너버벌 퍼포먼스 <난타>로 유명한 PMC프로덕션의 국내 최초의 수학뮤지컬 <제로 공주 실종사건>(4. 30~5. 31 웅진씽크빅아트홀)도 관심을 모았다. 주인공 엉뚱이와 피비우스 마법사가 수

학 나라를 위협하는 지우개 마왕에 맞서 제로공주를 구하러 떠나는 모험을 그렸다. 모험 여정에서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는 숫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가끔 흥행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작을 기획하는 악어기획이 마련한 뮤지컬 <로빈 훗과 친구들>(4. 15~6. 12 서울 대학로 씨어터일)도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김광보의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탐관오리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로빈 훗의 영웅담이 피아노와 통기타의 선율에 실려 재미있게 펼쳐졌다.

얼굴을 다친 엄마와 단 둘이 사는 하늘이가 부모님의 일기장을 찾아 나서면서 가슴저린 가족들의 사랑을 알아 가는 내용을 그린 극단 아름다운 세상의 창작 가족 인형극 <애기똥풀>(5. 5~7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도 감동적인 어린이극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본격 가족극 시즌이 지나 시작된 영어연극 <돌아온 리틀 드래곤>(5. 21~7. 3 서울 도곡동 라트어린이극장)도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지난 2002, 2003년 두 차례 공연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국내 어린이 영어연극의 효시인 <리틀 드래곤>은 2002년 9월말 라트극장 개관작으로 초연돼 주관객인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연극 자체의 수준과 영어학습 촉진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만큼 '준비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용이 갖가지 모험을 겪으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정확하고 교육적인 영어 대사, 수준 높은 무대, 심지어 로비와 화장실까지도 아이들을 동화 속 환상세계로 안내하는 극장측의 세심한 배려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다.



위 · 유익하고 재미있는 가족 국악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하는 국악보따리>
아래 · 어린이날 열린 가족음악회 <재미있는 음악선물>



위 · 국립극장 봄축제 <2005 어린이 난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줄다리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온 힘을 쏟고 있다.
아래 · 향아리에 화살을 넣는 투호놀이와 같은 다양한 참여 행사가 국립극장 광장에서 펼쳐졌다.

<돌아온 리틀 드래곤>은 영상이 새롭게 강조됐다. 폴란드 출신의 공연영상 전문가 보이첵 피자렉이 만든 3D 리얼타임 애니메이션이 리틀 드래곤의 여정을 따라 숲, 바다, 도시 등의 공간을 나타내는데, 특히 배우의 움직임에 맞춰 무대영상이 다채롭게 변하는 것이 재미있다. 라트 어린이극장을 꾸미는 데 관계한 이태섭씨의 무대는 역시 이 작품의 완성도에 크게 기여하



Family Festival

가족극 축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국립극장의 <어린이 난장>이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 축제는 새로 개장한 국립극장에서 신명나게 펼쳐졌다. ‘난장’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온갖 세상살이가 뒤엉켜서 생겨나고 벌어지는 장터의 모습처럼 펼쳐지는 어린이 공연 축제장터였다.

고 있다.

올 가족극 축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국립극장(극장장 김명곤)의 <어린이 난장>(4. 30~5. 8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이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 축제는 새로 개장한 국립극장에서 신명나게 펼쳐졌다. 김 극장장은 “‘난장’은 우주에 공존하는 혼돈과 질서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투영된 ‘어지러운(亂) 마당(場)’이라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온갖 세상살이가 뒤엉켜서 생겨나고 벌어지는 장터의 모습처럼 펼쳐지는 어린이 공연 축제장터”라고 설명했다.

토속적인 가족극의 명가로 자리잡은 극단 민들레는 대표작인 <똥벼락>과 새로운 레퍼토리 <아리아리 돈깨비>를 선보였고, 전통의 민중극장이 <토끼와 자라>라는 가족극을 모처럼 무대에 올렸다.

한편 국립극장 광장에서는 지푸라기로 새끼줄을 꼬고, 공을 만드는 ‘지푸라기 난장’, 직접 탈을 만들어 보는 ‘탈만들기’, 항아리에 화살을 집어넣는 ‘투호놀이’와 함께 ‘굴렁쇠굴리기’ ‘떡메치기’ ‘대웃놀이’ ‘비석치기’ 등 다양한 참여형 전통놀이가 펼쳐졌다.

가족과 즐기는 음악 프로그램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5월 가족공연에 빼놓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음악공연들도 있었다.

작곡가 신동일이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야기와 영상, 노래, 음악을 섞어 만든 이야기 콘서트 <시리둥둥 거미둥둥>(5. 5~8 추계콘서트홀)은 5월 가족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다.

지난 2, 3월 초연해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이야기 콘서트는 노래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로 노래를 부르는 체험 콘서트 형식이다. ‘애니메이션을 보며 노래 배우기’ ‘입으로 배우는 장단 놀이’ ‘노래 마다 이어지는 다양한 율동’ 등의 코너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해금, 피리, 현악4중주, 피아노, 퍼큐션 등 국악과 서양 악기를 섞은 색다른 실내악단의 반주에 맞춰 듣는 그림책 읽기와 애니메이션 감상은 독특한 감동을 만들어냈다.

대금·피리 반주에 맞춰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국립창극단의 주연 배우들이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며 세마치·굿거리 장단 등 우리의 장단을 설명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엄마와 함께 하는 국악보따리>(4. 30~5. 5 국립극장 달오름극장)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가족 국악 프로그램이었다. 흥겨운 전통 사물놀이에 맞춰 맘껏 소리치고 뛰어 놀면서 국악 가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무대로 평가된다.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어린이날 가족음악회 <재미있는 음악선물>(5. 5 국립국악원 예악당)도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무용극 <콩쥐팍쥐>를 비롯해 동요 모음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선사했다. 국립국악원은 이와 함께 풍선으로 만든 인형을 나눠주고 전통문양으로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 관심을 모았다.

2006년 5월에는 경제가 활짝 펴 연극, 뮤지컬, 음악은 물론 무용, 마임, 축제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울린 풍요로운 가족공연축제를 기대해 본다. 